

문화경관으로서 제주 밭담의 의미 탐색

강 성 기¹⁾

A Study on the Significance of the Field Walls on Jeju Island as the Cultural Landscape

Kang, Seong-gi¹⁾

요 약 : 문화경관은 인간이 자연을 접하는 과정에서 창출된 의미체로서, 자연 속에서 인간이 생존해 온 자취를 가장 잘 보여주는 특징적인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제주의 다양한 문화경관 중 밭담을 문화경관으로서의 의미와 가치에 초점을 두고 살펴본 것이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밭담은 제주도가 화산섬이라는 지역성과 깊게 연관되어 존재하는 경관요소이다. 둘째로, 밭담은 강한 바람의 영향에 적응한 제주주민들의 지혜와 함께 공동체적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경관요소이다. 셋째로, 밭담은 오랜 세월 동안 이어온 지속 가능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넷째로, 밭담은 그것이 위치하는 지역에 따라 현무암뿐만 아니라 퇴적암(층)과 조면암 등을 활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로, 밭담은 농경지와 농경지 사이를 구분 짓는 경계 기능을 통하여 특정지역의 토지이용의 변화상을 살필 수 있는 지표로 작용한다. 따라서 제주의 밭담은 제주를 대표하는 문화경관으로서 제주의 지역성을 이해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문화 유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주요어 : 문화경관, 문화유산, 밭담, 지역성

Abstract : The cultural landscape has been regarded as a characteristics value showing the trace of every human being's survival in the nature as well as a meaningful object created between the nature and human beings. This study focuses on the significance and value of the field walls in Jeju Island as the cultural landscape among many other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field walls are a type of landscape existing due to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Jeju Island as a volcanic island. Second, the field walls show the wisdom and communal living shown by the people living in Jeju Island, who have become accustomed to the influence of the strong wind. Third, the field walls hold the value of cultural heritage which can be maintained for a long time. Fourth, the field walls show the utilization of basalt, sedimentary rock (layers) and trachyte according to the location where the field walls are located. Fifth, the field walls work as the indicator to examine the changes in the land use pattern of a specific region through the boundary function to divide between farmlands. Therefore, the field walls in Jeju Island possess the value of cultural heritage absolutely required for understand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Jeju Island as the representative cultural landscape of Jeju Island.

Key words: Cultural Landscape, Cultural Heritage, Field Walls, Local Characteristics

1. 서 론

요즘 제주는 경관이라는 용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관심을 갖는 상황에 있다. 그 이유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관선정을 위한 세계 7대 자연 경관 투표(N7W)가 한창이고, 또한 ‘올레길’로 대표되

¹⁾ 제주대학교 박사과정, 제주 월랑초등학교 교사(Ph.D. course, Jeju National University, Teacher, Wollang Elementary School), darkhorse06@naver.com

는 걷기 열풍은 관광객뿐만 아니라 제주도민들에게도 제주의 경관을 느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를 대표하는 경관은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한라산, 성산일출봉, 용암동굴 등의 자연 경관이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유일하게 세계자연유산과 세계지질공원으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제주는 화산활동의 모습을 잘 간직한 자연 경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과는 차별되는 독특한 문화경관도 있다. 제주도의 대표적인 문화경관으로는 오름 주변의 산담, 초가집과 올레길, 해안가 용천수를 중심으로 형성된 촌락모습, 다양한 유형의 돌담 등이 있다.

최근 들어 문화경관은 인간이 자연을 만나면서 형성되는 가시적·정신적인 의미체로서, 자연 속에서 인간이 생존해 온 자취를 가장 잘 보여주는 특징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199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협약은 문화적 경관을 구상하는 회의를 개최하였고, 1994년에는 문화적 경관의 개념을 도입·운영지침을 개정하였다(양보경, 2009, 23).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제주의 문화경관은 바로 발담이다. 발담은 제주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돌담 중 발을 둘러싸고 있는 돌담을 말한다. 이는 제주도민들이 오랜 세월 동안 지역의 자연과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 낸 작품이며, 도시화·산업화 이후 현재까지도 그 역할이 지속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세계적으로 발담을 이렇게 집단적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주 발담 보다 역사적 기간이 짧은 영국의 농경지 돌담은 역사, 경관, 야생생물 보호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돌담 제거를 바라는 농민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포르투갈도 돌담과 관련한 경관구조 파괴는 법으로 금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토지 및 문화경관계획이 도입되어 오솔길을 차단 또는 경작하지 않거나 들판의 돌담, 유적들을 제거하지 않는 농민들에게 보조금이 지불되고 있다. 웨일즈에서는 티르 사이멘(Tir Cymen)이라는 농업-환경 계획을 도입하여 주로 돌담 복구를 위한 농장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같은 돌담의 파괴와 관련된 금지 조항은 유럽연합이 설정한 규정(EEC 2078/92)에 근거하여 오늘날 대부분의 유럽연합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다(강대선, 2004).

하지만 현재 제주의 발담은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기는커녕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여 훼손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의 발담을 문화경관의 프리즘을 통해 지역성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재조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제주 전 지역에서 살필 수 있는 발담 중 과거의 모습을 잘 간직한 귀덕1리, 1970년 이후 변화를 살필 수 있는 수원리와 김녕리, 해안가에 접해있는 내도동, 중산간지역에 위치하는 봉개동, 지질적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신양리와 사계리, 마지막으로 발담을 거의 볼 수 없는 대표적 지역인 고산1리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2009년 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현장답사와 지역 주민들의 인터뷰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제주의 발담은 문화유산적 가치와 제주의 지역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문화경관으로서의 제주 발담

제주의 지역성 논의에 있어 돌담은 많은 연구자들에게 매력적인 대상이다. 이 중 제주도 전 지역에 걸쳐 발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발담은 그 독특성으로 인해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었다. 지금까지 발담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발담의 유래와 기능 그리고 형태적 측면의 연구(김종석, 1998; 강정호, 2000), 발담의 확산 과정에 관한 연구(강문규, 2006), 제주 발담과 프랑스 Bocage 경관의 비교연구(이준선, 1999), 제주도 발담의 현황과 보전실태 조사를 통한 문화자원화에 관한 연구(고성보, 2009), 그리고 돌문화 요소로서의 발담 연구(정광중·김은석, 2008) 등이 진행되었다.

경관이란 외형이든 그 곳에서의 현상들 간의 상호

관계에 의해 혹은 내부적·외부적 위치관계에 의해 주변공간과는 확실히 식별되며 일정한 특징을 갖는 지표의 한 구획으로서 존재한다. 경관은 모든 문화를 배제한 자연의 형성에 의한 자연경관과 인류의 탄생 이래 인간의 삶 속에서 형성된 문화경관으로 구분된다. 전통적으로 문화경관의 대상은 취락, 토지이용, 토지구분방법, 다양한 유형문화가 있으며 특히 농민들의 다양한 농업활동을 통해 축적된 결과가 농촌경관으로 나타난다. 농촌경관의 요소로는 농가와 부속시설, 도로, 수로, 농경지, 임야, 종교시설 등이 있는데 이들은 자연환경과 사회·문화적 특징 등을 반영함으로써 장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中村和郎·石井英也·手塚章, 2001; 56).

따라서 문화경관에는 인간 집단의 태도, 가치관, 열망과 기대, 공포 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집단의 문화를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문화경관을 해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테리 조든-비치코프·모나 도모시, 2002; 23).

산업화·도시화 등으로 농촌경관에 대한 관심이 줄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구 가치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제주지역은 아직도 동부와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촌락의 형태가 많이 남아있고 육지와는 달리 독특한 경관으로서 과거로부터 경작지를 둘러싸고 있는 발달이 많이 남아 있다.

발담은 제주도민들뿐만 아니라 타 지역주민들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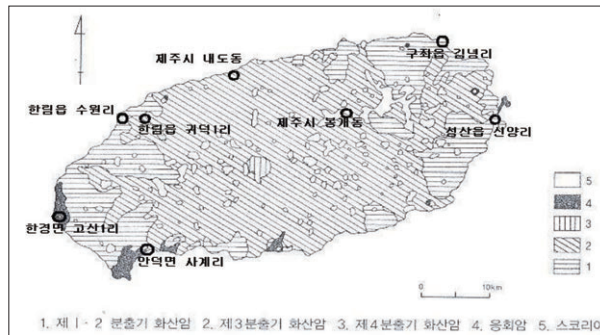
도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제주를 대표하는 경관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최근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제주지역의 자연적·인문적 특징을 간직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문화경관으로서 발달은 제주주민들이 오랜 세월 동안 지역의 자연과 상호작용하면서 공동체적 삶의 방식과 태도 및 가치관 등을 반영한 요소로서 부각되고 있으며, 더욱이 도시화·산업화가 진행되고 농업이 기계화된 오늘날에도 그 역할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발달은 제주도 전 지역에 걸쳐 집단적으로 존재하는데, 이것은 타 지역의 경관과는 확실히 구별되는 중요한 기능체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3. 지역별 발달의 특징

1) 과거의 모습을 잘 간직한 발달 : 한림읍 귀덕1리

귀덕1리는 제주에서도 전형적인 밭농사 지역으로 발달이 잘 남아 있는 마을 중 하나이다. 귀덕1리뿐 아니라 인근 지역¹⁾의 발달은 높이가 비교적 높고, 너비도 넓은 곁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은 이 지역에서 돌들이 많이 나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귀덕1리는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제주도의



<그림 1> 제주도 지질분포와 지역별 발달 답사 지역

자료 : 원종관(1975)을 토대로 필자 일부 수정

화산활동 중 제3분출기에 분출한 현무암 분포지역에 속하며, 이 당시 분출한 현무암은 제주도 남쪽과 북쪽의 해안지대와 함께 해발 200~500m의 중산간 지대까지 넓은 지역을 덮고 있다.

귀덕1리의 여러 자연마을 중에서도 성로동(城路洞)²⁾은 이름 자체에서도 돌이 많은 지역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그림 1>과 같은 잣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잣질은 잔돌을 겹쳐 쌓아 그 위로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촘촘하게 쌓아 만든 발담이다. 잣질은 지역주민들이 경작과정에서 불필요한 돌들이 많이 나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잣질은 도로에 인접한 밭 소유자와 그렇지 못한 소유자 간의 관계에서 이웃을 배려한 공동체 문화의 흔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도로에 인접한 밭 소유자는 발담이 두꺼워질수록 경작지 축소라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지만, 도로를 끼고 있지 못한 밭 소유자에게는 농산물의 반출이나 농기구나 비료 등을 반입하는 데에 불편함을 크게 해결해 주는 기능을 한다.

이와 같이 귀덕1리 발담은 겹담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 특히 잣질 형태로 쌓은 발담을 인접하는 경작지의 주민들이 양쪽에서 쌓아올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귀덕1리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 지역의 발담은 기본적으로 밭의 소유자와 그 가족들이 경작과정에서 나온 불필요한 돌들을 활용하여 쌓아올린 것임을 틀림없다고 하겠다.³⁾ 이런 점을 감안하면, 제주 전 지역에 걸쳐 형성된 발담은 시간적으

로 볼 때도 매우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1970년 이후 변화를 살필 수 있는 발담 : 구좌읍 김녕리와 한림읍 수원리

(1) 구좌읍 김녕리 발담

제주의 어른들은 '장가는 동쪽으로 가고, 시집은 서쪽으로 가라' 라는 말을 하곤 한다. 이는 과거로부터 서부지역이 토지가 상대적으로 비옥하여 부유했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시집을 가더라도 고생을 덜한다는 의미이고, 동부지역은 토질이 척박한 이유 때문에 여성들이 훨씬 더 근면하고 성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2003: 69). 이처럼 동부지역의 토질이 척박한 배경은 동부지역인 김녕리와 그 주변지역⁴⁾이 화산활동으로 인하여 파호이호이 용암이 대량으로 흐른 사실과 깊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동부지역은 농사짓기에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조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김녕리의 발담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그것의 위치와 형태에 따라서 특별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 먼저, 김녕리의 발담 중에는 <사진 2>와 같이 잣질 형태의 발담이 있다. 이는 귀덕1리와 같이 경작과정에서 돌이 많이 나왔으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공동체적 문화를 엿볼 수 있는 토대가 된다. 하지만 김녕리의 잣질이 귀덕1리의 잣질과 다른 점은 경작과정에



<사진 1> 귀덕1리 잣질(발담 길)



<사진 2> 김녕리 잣질



〈사진 3〉 김녕리 암반을 깬 후 쌓은 발담



〈사진 4〉 바람에 의해 운반된 모래



〈사진 5〉 경지정리과정에서 일부 남아 있는 발담

서 자연스럽게 나온 돌과 더불어 암반을 인위적으로 깬 돌들을 같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점은 김녕리 주민들이 농사짓기 어려운 조건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녕리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여 암반을 제거하였고, 최근에는 중장비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밭을 조성하고 있다. 따

라서 김녕리에서는 〈사진 3〉과 같이 암반 위에 존재하는 발담의 형태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김녕리의 발담 주변에서는 바람에 의해 운반된 모래를 쉽게 볼 수 있다. 김녕리는 겨울과 초봄에 강한 북서풍을 타고 해안에서 내륙 쪽으로 모래나 토양입자들이 이동한다. 이 때문에 〈사진 4〉와 같이 발담주위에 모래가 퇴적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것은 발담이 방사(防砂)역할도 겸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아가 김녕리 주민들은 발담을 〈사진 5〉와 같이 밭 한가운데 쌓아두기도 하는데, 이것은 발담이 바람의 영향으로 인하여 흙이 한쪽으로 편중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⁵⁾ 이와 같은 사례의 발담은 주로 밭 가운데에 위치하는 암반으로 인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에 주로 쌓는다.

세 번째로, 김녕리의 발담은 다른 지역에 비해 경계가 매우 복잡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농가주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밭의 크기가 비교적 작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배경에는 제주도가 한반도의 장자우대 상속제와는 달리 중자균분 상속제가 널리 시행돼 왔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 제주도에서 오랫동안 시행돼 온 중자균분 상속제는 토지를 모든 자식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고, 제사도 형제들끼리 나누어 행하는 풍습이다. 따라서 제주도의 토지는 김녕리의 사례에서 보듯이 자식들에게 상속되는 과정에서 여러 개로 분할됨으로써 발담의 경계선이 복잡해질 수 있는 배경을 안고 있다.

이처럼 김녕리 발담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주도에서는 발담을 통해 지역적으로 농업환경의 악조건을 슬기롭게 극복한 제주도민들의 삶과 함께 한반도와는 다른 고유한 풍습도 살펴볼 수 있다.

(2) 한림읍 수원리 발담

수원리는 해안가에 돌출된 작은 반도형의 해안마을로서 마을해안의 대부분은 평평한 파호이호이용암류로 구성되어 있어 해안전체가 마치 큰 ‘밀레’를 연상케 한다(강순석, 2004: 48). 수원리는 광복이전에 제

주의 대표적인 곡창지대로 알려져 있으며, 마을주민들은 ‘구름드르(雲野)’에서 생산되는 풍족한 잡곡으로 다른 마을에 비해서는 비교적 운택한 생활을 했다. 특히 1973년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밭 경지정리사업에 착수하여 잣질을 제거하고 농로를 직선화함으로써 <사진 6>과 같이 농지를 바둑판처럼 정리하는 성과를 가져오게 되었다(한림읍, 1999: 1051-1052).

이처럼 수원리는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제주도에서도 전통적인 밭담이 사라지게 된 대표적인 마을로 부각된다. 제주도에서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해 100ha 이상의 넓은 면적에서 농업경관이 바뀌 마을은 수원리 외에도 조천읍 신촌리, 한경면 고산1리, 대정읍 인성리가 있다(제주특별자치도, 2010: 59).

수원리 경지정리사업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농업 생산량을 높이려는 계획과 함께 마을주민들이 곡선 형태의 밭담으로 농기계 사용의 불편함과 또 도로에 인접하지 못한 밭 소유자들의 불편함을 해결하려는 의도가 동시에 맞물려 시행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지정리사업은 농업의 효율성은 가져왔지만, 상대적으로 과거로부터의 유산인 밭담을 사라지게 하는 배경이 되었다.

경지정리사업은 우선적으로 농기계의 사용을 위해 곡선의 밭담을 직선으로 조성했다. 또한 밭 중간 중간에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너비만큼의 농로를 조성함으로써 주위의 모든 경지들이 농로를 접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필요 없는 돌들을 없애는 과정에서 밭담을 완전히 없애거나 또는 일부 남아 있는 밭담마저 높이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과적으로 수원리 밭담은 경지정리의 변화에 보조를 같이하면서 사라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밭담의 변화는 그 이후 농작물의 변화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과거에 조나 보리 등의 재배에서 현재 양배추, 파, 무, 브로콜리 등의 채소류 재배로 바뀌어 있다. 말하자면 과거에는 밭담이 높이로 1m가 훌쩍 넘는 키 큰 농작물을 재배했다면 현재는 50cm 이하의 키작은 농작물로 변한 것이다. 농작물의 변화는



<사진 6> 수원리 경지정리사업 후 위성사진

출처: <http://local.daum.net>



<사진 7> 수원리 경지정리사업 후 잔존 밭담

근본적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농민들의 소득과 크게 연관성을 맺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밭담 높이의 변화가 농작물을 선택하는데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⁶⁾

한편 수원리 밭담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변하지 않은 사실도 있다. 그것은 바로 경작과정에서 아직도 많은 돌들이 나온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새로 조성한 농로의 폭이 좁아져서 또 다시 돌들을 제거해야만 할 정도라는 것이다.⁷⁾ 이처럼 경지정리사업 이후에도 어쩔 수 없이 조성되는 밭담이 현시점에서 <사진 7>과 같이 밭의 경계 기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경지정리사업 이후에 조성된 밭담 자체는 지속 가능한 경관자원으로서 가치를 확인시켜주는 존재로 이해할 수 있다.



〈사진 8〉 내도동 발담



〈사진 9〉 봉개동 잣성(하жат)

3) 해안가 발담: 제주시 내도동

내도동은 내도 알작지 해안으로 유명하다. 이것은 작은 조약돌로 이루어진 역빈(礫濱)해안이다. 이 자갈들은 외도천과 도근천의 중·상류에서 풍화·침식된 역(礫)들이 강우 시에 하구 쪽으로 흘러 내려온 것이며, 하구부근에서는 다시 연안류에 의해 내도동의 해안에 퇴적하게 된 것이다(외도동향토편찬위원회, 2005: 57). 제주의 하천 하류구간에서는 종종 내도 알작지와 같은 소규모의 역빈해안을 찾아볼 수 있다.

내도동은 해안지역의 발담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내도동 발담의 특징은 경작과정에서 나온 돌들도 이용했지만 주로 하천 하류와 바닷가 경계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둥근 먹돌을 가지고 쌓았다는 점이다. 또한 내도동 발담은 〈사진 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높이가 낮은 편이다. 이는 경작과정에서 돌이 별로 나오지 않았다고 사실과 함께 먹돌 자체가 둥글고 매끄러워서 발담의 높이를 더하며 쌓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도동의 발담은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막는 기능보다는 주로 경작지의 경계의 기능을 한다고 지적할 수 있다.

4) 중산간 발담 - 제주시 봉개동

중산간지역의 발담은 역사적으로 제주의 목축문화와 연관되어 있다. 충렬왕 2년(1276)에 몽골에서 말 160필과 말사육 전문가들인 목호(牧胡)들이 제주로 들어와서 오늘날의 남제주군 성산을 수산리 일대에

몽고식 마목장인 탐라목장을 건설한 것이 제주도 목장의 기원이다(제주도문화예술과, 2002, 66). 고려시대부터 전략적 말산업의 요충지 역할을 했던 제주는 목축산업으로 인해 중산간지역에는 농작물을 재배하기 보다는 대규모로 말을 기르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제주도민들은 중산간지역에 말들을 보호하고 말들로부터 농작물의 피해를 막는 역할을 하는 잣성을 축성하였다. 잣성 중 해밭고도가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하жат(下城)은 세종 11년(1429)년경에 고득종의 건의에 따라 한라산 중산간지역(해밭 200~600m)에 해안지역의 촌락과 경지를 보호하기 위해 경계용 돌담을 쌓은 것이다. 그 결과 제주의 중산간지역에는 10개의 목장(10소장)이 설치되었다. 〈사진 9〉는 제주시 봉개동에 위치하는 잣성(하жат)으로 당시 3소장이 있었던 곳이다(제주도문화예술과, 2002, 74-78). 이와 같이 중산간지역에 목장이 입지함으로써 잣성은 말과 농작물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볼 때 기존 발담의 기능과는 차별화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결국 이로 인하여 제주도의 농경지역은 주로 중산간지역보다 해밭고도가 낮은 지역에서 행해지게 되었다.

제주도민들은 19세기에 들어와 목장 내에 경작이 허가되면서 중산간지역에도 부분적으로 농경지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따라서 일정한 시기에 이르러서는 중산간지역에도 발담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또한 목장이 사라진 곳을 중심으로 잣성은 발담과 같은 밭의 경계 기능을 띠기 시작한 것이다. 정리해서 말하

면, 중간간지역에 조성된 밭담은 해안지역의 밭담보다 시기적으로 역사가 짧다고 말할 수 있다.

5) 지질적 차이가 잘 드러나는 밭담 : 성산을 신앙리와 안덕면 사계리

(1) 성산을 신앙리 밭담

신양리는 제주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신양리의 지질적 특징은 성산일출봉의 형성과 동시에 혹은 그 직후의 침식작용으로 인한 물질들이 파도와 해류에 의해 둥글게 마모되면서 퇴적지층(신양리층)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제주화산연구소, 2009, 69). 신양리층에는 여러 종류의 조개류와 절지류 등의 동물화석이 포함되어 있다.

신양리 밭담은 비교적 높이가 낮은데다가 <사진 10>과 같이 지질적 특성이 내포된 퇴적암임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경작과정에서 지하 토양층에서 돌이 별



<사진 10> 신양리 퇴적암(신양리층) 밭담



<사진 11> 올레길 형태의 밭담

로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그리고 성산일출봉의 화산재와 화산력들로 이루어진 퇴적층이 풍화작용을 받아 파괴된 암석을 활용하고 있다는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주요 도로에 인접하지 못한 일부의 농가 주인들은 <사진 11>에서 보듯이 올레길 형태의 밭담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밭담의 경우는 농가 주인이 농사활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기존의 밭담 경계를 변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양리 밭담의 사례에서는 지역의 지질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 농경지의 경계 변화를 통한 마을주민들의 토지이용의 실태도 확인할 수 있다.

(2) 안덕면 사계리 밭담

사계리와 주변지역에 분포하는 암석류와 퇴적층은 광해악현무암, 병악현무암질조면안산암, 당산봉응회암, 한라산조면암, 송안산응회암 및 사구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계리는 대부분이 광해악현무암으로 덮여 있지만, 산방산에서 화순해수욕장을 지나는 도로상에서는 한라산조면암을 관찰할 수 있다(안덕면, 2006, 133).

사계리 밭담의 일부는 제주도 대부분의 밭담이 검은색 계통의 현무암인 것과는 달리 회색을 띤 조면암의 특징이 보인다. 이처럼 사계리의 일부지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조면암 밭담은 산방산 주변이 조면암의 지질특성을 기반으로 농경지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대변하는 것이며, 따라서 주민들이 경작과정 중 토양



<사진 12> 사계리(산방산 서쪽)의 조면암 밭담

층에서 나온 조면암의 돌을 자연스럽게 활용하면서 나타나게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일부 주민들은 주변부로부터 조면암의 돌을 운반하여 쌓았다는 사실도 이해할 수 있다.

6) 밭담을 볼 수 없는 경관 - 한경면 고산1리

많은 사람들은 제주도라면 어디든지 밭담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고산1리 주변은 제주에서 밭담이 없는 대표적인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고산1리에 밭담이 없다는 것은 경작과정에서 거의 돌이 나오지 않았다는 배경을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지역의 토양을 살펴보면, 수월봉 해안의 절벽에서는 세립질 퇴적층이 확인되며, 이 지층의 하부에는 약 1~2m 두께의 유기물이 다량으로 함유된 점토층이 기저현무암과의 사이에서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점토층은 당산봉 아래 해안을 따라 한장동(고산1리의 한 자연마을)까지 연속되어 있으며, 암갈색의 점성이 큰 미고결층으로 확인되고 있다(제주화산연구소, 2009, 108). 이러한 사실을 전제한다면, 고산1리에서 밭담이 관찰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고산1리 주민들은 제주에서는 드물게 <사진 13>과 같이 독의 형태로 밭의 경계를 만들고 있다. 이 마을에서는 이를 ‘두력’이라고 한다. 고산1리는 제주에서도 밭벼재배가 가능한 대표적인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고산1리에서도 <사진 14>같이 일부지구에서는 농경지에 돌이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밭의 경계로 삼기 위하여 고산1리 바로 남쪽에 위치하는 대정읍 신도리에서 돌을 운반하여 쌓은 것이다.⁸⁾

많은 연구자들은 제주 밭담의 기원을 바람과 관련지어 생각하기 쉽지만, 고산1리는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주에서도 가장 바람이 강한 지역이다. 돌담 대신 독으로 밭 경계를 삼는 고산1리 사례는 아무리 바람이 강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경작과정에서 돌이 나오지 않는다면 밭담은 형성될 수 없다는 배경



<사진 13> 고산1리 독으로 된 밭 경계



<사진 14> 고산1리 밭담의 잔존 모습

<표 1> 제주도 지역별 기후요소의 연평균값(2003~2009년)

지점	구분	기온(℃)	연평균 풍속(m/s)
제주		16.1	3.3
성산		15.8	3.2
서귀포		17.1	2.8
고산		15.7	7.2

자료 : 제주지방기상청(2010)

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사례는 밭담 형성이 기후적 특징보다는 지질적 특징과 깊게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4. 결 론

본 연구는 제주의 밭담을 문화경관의 의미와 가치에서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밭담은 다음과 같이 제

주의 지역성을 설명할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의 의미와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로, 발담은 화산섬 제주의 형성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요소로서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즉 발담의 재료인 돌들이 농경지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돌들이 지천에 깔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나아가 제주에 돌이 많다는 사실은 화산활동을 빼고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둘째로, 발담은 주민들이 섬이라는 지리적 환경 속에서 강한 바람의 영향에 적응한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요소이다. 셋째로, 발담은 시간적으로는 800년9)에 가까운 역사성과 함께 경지정리사업의 영향 속에서 많은 변화를 거듭했지만, 현시점에서도 농경지의 경계선 기능을 통해 지속가능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존재로 부각된다.

넷째로, 발담은 고도에 따라 다양한 암석을 활용하는 주민들의 지혜를 확인할 수 있는 요소로서, 해안가에서는 먹돌을 이용한 발담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중산간지역의 발담은 이 지역이 오랜 기간 목장으로 활용되다가 19세기에 이르러 밭으로 사용하게 된 역사적 사실과 함께 발담의 역사가 비교적 짧은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다섯째로, 발담은 제주의 중자균분 상속제를 통해 농경지의 경계가 점점 복잡해질 수 있었던 사회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으며, 또 잣질은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적 삶을 엿볼 수 있는 기능체로서 작용하고 있다. 여섯째로, 발담은 제주지역의 다양한 특징을 보여주는데, 가령 산방산 주변의 발담은 제주에서도 드문 조면암으로 형성되었고, 신양리 발담은 퇴적암으로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발담 자체가 각 지역의 지질적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지리적 요소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발담은 농경지의 경계 기능을 한다는 측면에서 특정지구의 토지이용의 변화상을 파악할 수 있는 요소로 부각된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 논의된 사실과 결과를 통해 앞으로 살펴봐야 할 점도 있다. 우선 제주지역에서도 한라산 남쪽 지역은 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감귤산지로 변

화하면서 대부분의 발담이 사라졌다. 향후, 서귀포 중심부 지역에 대한 발담의 분포 정도는 물론이고 발담이 제거되는 과정과 배경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더불어 발담이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유산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교육용 자료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발담이 지역주민들에게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인식과 함께 향토에 함양에 크게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주

- 1) 귀덕리 동쪽 금성리와 괄지리 등이 있다.
- 2) 제주어로 '잣질동네'라고 하며 여기서 '잣'은 보통 돌로 쌓은 성이라는 뜻이고, '질'은 제주어로 길을 뜻한다. '잣질동네'를 한자어로 표현하면 '城路洞'이 된다.
- 3) 마을주민 홍달표(남, 80세)씨로부터 청취조사에 의함.
- 4) 김녕리를 중심으로 그 주변지역인 월정리, 행원리, 동복리 등지에서도 파호이호이용암류의 흔적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5) 이와 비슷한 기능으로, 제주에는 '지름자갈'이라고 하는 작은 돌들을 밭 중간 중간에 일부러 깔아 놓기도 한다. 이는 바람에 흩날라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 6) 마을주민 김대순(여, 71세)씨로부터 청취조사에 의함.
- 7) 수원리 마을이장 하영환(남, 56세)씨로부터 청취조사에 의함.
- 8) 마을주민 김승하(남, 77세)씨로부터 청취조사에 의함.
- 9) 학자마다 돌담의 기원에 대한 이견이 있으나, 여기서는 1234년(고종 21년) 동문감(東文鑑)의 기록을 기준으로 한다.

■ 참고문헌

강문규, 2006, 제주문화의 수수께끼, 도서출판 각.

강순석, 2004, 제주도 해안을 가다, 제주도민속자연사 박물관.

강정호, 2004, 화산섬, 돌 이야기, 각.

고성보 외3명, 2009, 제주의 돌담 -가치평가와 문화관광자원화 방안-, 제주대학교 출판부.

김중석, 1998, "제주도 전통사회의 돌(石)문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전공 석사논문.

송성대, 2001, 제주의 해민정신 -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도서출판 각.

- 신용석, 2011, “관광학연구에서 지리학적 접근법의 모색 - 텍스트로서 경관의 비판적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한국관광학회지 35(2), 한국관광학회, 49-68.
- 안덕면, 2006, 안덕면지(마을편), 안덕면.
- 양보경, 2009, 월간 문화재 사랑 50, 문화재청, 22-25.
- 외도동향토지편찬위원회, 2005, 외도동향토지, 도서출판 각.
- 원종관, 1975, “제주도의 형성과정과 화산활동에 관한 연구”, 『이학논집』, 건국대학교, 1: 7-48.
- 이준선, 1999, “프랑스와 한국의 농경지 풍경의 비교”,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7(2),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825-848.
- 정광중 · 김은석, 2008, “북촌리 주민들의 거주환경에 따른 돌문화 관련자원의 형성과 배경”, 한국사진지리학회 18(1), 한국사진지리학회, 7-26.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2003, “(사회교육과 학술제: 세지오(SEGEO)) 제주도 동부와 서부의 생활상의 차이 - 지리적 환경을 중심으로”, 제대사회과교육 19, 69-75.
- 제주도문화예술과, 2002, 제주도 제주마, 제주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 제주지방기상청, 2010, 제주도 상세기후특성집, 제주지방기상청.
- 제주특별자치도, 2007, 한경면 역사문화지, 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 제주특별자치도, 2010, 2010 주요 농축산 현황,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화산연구소, 2009, 제주도 지질공원, 서보미디어.
- 한림읍, 1999, 한림읍지, 한림읍.
- 中村和郎 · 石井英也 · 手塚 章, 정 암 외 2명 옮김, 2001, 지역과 경관, 선학사.
- 테리조든-비치코프 · 모나 도모시, 류제현 옮김, 2002, 세계문화지리, 살림.
- 제민일보, 2004년 10월 19일(화), 제7면 (강대선), 제주가 잃어가는 에메니타: 돌담. 🌐

투고일 2011. ??. ??
 수정일 2011. ??. ??
 확정일 2011. ??. ??